[로스쿨 소식]

로스쿨 입시, 면접 비중 줄고 학점 · LEET 반영 늘 듯

- 교육부, 2016년 업무계획 발표,“점수로 줄세우기 초래” 우려도 -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부터 면접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대학 학부시절 학점과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 등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지난 1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 ·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온 로스쿨 입시 제도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학생 선발실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새로운 선발체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점과 LEET 성적 등 객관적인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 요소는 보완적 · 제한적으로만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5분위(상위 20%) 이하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득 2분위(하위 20~40%)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함께 지원하는 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제도 개선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성 시비는 줄어들겠지만,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인 사법시험 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는 사시 제도와 차별화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정성평가를 축소하는 것은 로스쿨 존립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성평가를 어떻게 하면 정당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LEET 점수나 학부 학점, 영어성적 등으로 학생들을 줄세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